# 독일의 사회적 농업*

안 규 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 1. 들어가며

서유럽 일부 국가들은 정원이나 숲 가꾸기, 작물 생산과 같은 농업활동이 사회와 정부로부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치유, 치료, 교육과 같이 부차적이지만 그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농작물이라는 일차적인 결과물 외의 농업의 다원적인 기능에 주목한 서유럽 지역에서는 농촌지역을 기반을 둔 다양한 활동을 고안하면서 사회적 농업이라는 특수 형태의 농업을 발전시킨다. 사회적 농업이 점차 성숙하여 그 효과가 알려지면서 이러한 농업활동은 다른 지역으로도 전파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농업은 그 개념과 용어가 먼저 만들어지고 난 후 그 개념에 상응하는 정형화된 서비스로서 탄생하지 않았다. 농업과 농촌지역에 기반을 둔 여러 가지 활동이 농업생산이라는 일차적 목적 외에 다른 유사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현상, 하나의 사회적 운동으로서 이름 붙여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농업을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의 내리기 힘들고 그 기원을 정확히 찾는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사회적 농업으로 분류되는 농업 기반의 사회운동, 또는 사회서비스는 그 효과와 이

* (kyumiahn@krei.re.kr).

점이 점차 알려지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우리나라 등 세계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다.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재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사회적 농업을 시도한 각 나라는 자국의 수요와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형태의 농업을 처음 적용한 시기, 일반 시민들의 인지도, 정부의 지원상황이 각국의 사회적 여건과 역사적인 요소에 따라 상이함은 물론이다. 일부 국가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이제 갓 사회적 농업을 도입한 국가에서는 모두에게 그 용어조차 낯설다.

사회적 농업이 시도된 지 오래되고 사례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국가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특히 독일에서 사회적 농업의 시초가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래전부터이다. 1800년 후반, 교회나 초기 형태 병원의 부속 정원을 중심으로 사회보호시설로서의 농가조직이 등장하면서 근대적인 의미의 사회적 농업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의 사회 보호 및 재활 시설에서는 공동체의 식량자급을 위하여 소규모의 농장을 일구었다. 이 전통을 이어갔던 농가조직들이 독일 초기의 사회적 농업의 명맥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식품가격이 급락하면서 많은 농가조직과 농장은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중 일부 농가는 보호 작업장으로 탈바꿈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삶터이자 일터가 된다(So Far Project, 2009). 1990년대를 전후하여 독일에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면서, 유기농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독일의 사회적 농업은 이전보다 더욱 각광받게 된다. 취약계층의 재활 지원과 사회통합의 방책으로 추진되어오던 사회적 농업은 그 외연을 넓혀, 어린이 교육 목적의 농장도 운영되기 시작한다.

사회적 농업이 태동하는 시기의 우리나라 농업농촌현장과 사회복지, 교육, 보건 부문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독일의 길고도 꾸준한 사회적 농업의 역사를 되짚고 주요사례와 현주소를 살펴보려 한다. 독일에서 고유하게 영근 사회적 농업의 형태는 무엇이며 그 효과는 어떻게 알려져 있는지에 특히 주목하여본다.

## 2. 발전과정 및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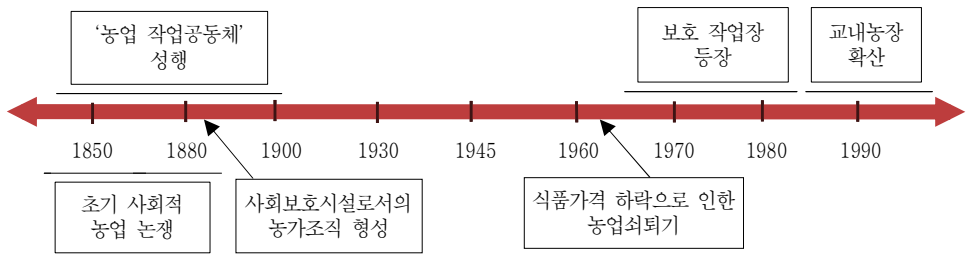
### 2.1. 발전과정 및 역사

독일에서는 중세의 기도원, 교회, 요양원, 병원 등에 부속된 정원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업이 움트기 시작하였다. 180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보호시설의 일환으로 농가

조직이 형성되면서 근대적 의미의 사회적 농업으로 이행된다. 그러나 1960년대 전후 독일에서 식품가격이 하락하면서 사회적 농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농업 활동이 쇠퇴기를 맞는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정부가 인증하는 보호 작업장이 독일 곳곳에 세워지면서 사회적 농업 활동을 전개할 공식적인 공간이 마련된 셈이다. 이후 1990년대부터는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내농장들도 널리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850년경부터 18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농업활동에 참여시켜 치료를 시도하는 접근방식을 두고 독일에서는 언론을 통하여 폭넓은 논쟁이 일기도 하였다.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에는 국가 전역에서 소위 '농업 작업공동체'가 성행하기는 하였지만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식물을 심고 수확하는 일의 정신적 치유효과가 공론화되고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Neuberger et al, 2006).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보호시설의 구성원에게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데 더욱 큰 의미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독일의 사회적 농업 발전과정




1930년에서 1945년 사이와 1960년에서 1970년대 사이에 독일에서 원예치료는 쇠퇴기를 맞이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 다시 활발해졌다. 일반적인 노동과 원예노동을 통한 치유효과가 보다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원예치료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갔다. 정신약리학과 심리요법과 같은 기존의 치료법이 정신질환자의 병세를 개선하는데 기대 이하의 효과를 보였던 것도 원예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상한 계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 일반산업부문의 노동치료요법도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환자들이 노동의지를 갖고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실패하면서 일반노동을 통한 치료법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독일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도입한 것은 여러 농업활동 가운데서도 원예요법이라는 점을 눈여겨볼만하다. 정원 가꾸기가 사람

의 신체와 정신 건강을 향상할 것이라는 아이디어는 1800년대부터 독일에서 꾸준히 발전하여왔다. 특히 지적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서양의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외의 생산적인 작업을 통하여 병세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얻으리라는 생각이 점차 퍼졌다.

사회적 농업을 일찍이 도입한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게, 독일에서 오래 전부터 원예요법이 특히 발달하게 된 이유는 원예노동이 산업부문의 노동보다 훨씬 다양하고 단계화된 작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원예활동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의 작업들은, 쉽게 동기부여나 자극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작업에 융통성을 발휘하고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활용하게 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자아낼 가능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었다.

## 2.2. 개황

독일의 사회적 농업은 크게 두 갈래로 발전되어 왔다. 지적발달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회와 공동체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장애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하나이다. 지적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 일터를 제공한 농장은 주로 작업공동체나 보호 작업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갔다. 다른 하나의 주요한 갈래는 학교 안에 농장을 조성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을 돕는 것이다<표 1 참조>.

표 1. 목적과 주체에 따른 독일 사회적 농가 수(개)

| | 민간부문 | 공공부문 | 기타 | 합계 |
|---|---|---|---|---|
| 치유목적의 농장 | 12 | 150 | | 162 |
| 교내 농장 | | | 58 | |

자료: Di Iacovo (2008).

독일에서는 신체 또는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돕는 프로젝트, 어린이와 노약자가 농업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농장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농업이 시도되고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도 신체와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농업활동이 중요한 사회적 농업 형태로 자리 잡았다. 농장의 동식물이 신체 및 정신 질환자의 치유를 돕는 보조사인 동시에 동반자 역할을 하며, 환자에게 명상을 위한 시간과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활동이 널리 확산되어간 것이다. 사실,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한데 모아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생각은 독일연방이 형성될 당시만 하더라도 다소 획기적인 것이었다. 초기에는 교회조직이나 사회단체들이 독일 고유의 재활지원시설인 보호 작업장을 주도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였고 지금까지 그 전례들이 이어져왔다.

사회적 농업과 관련하여 유럽에서 가장 광범한 흐름을 주도하는 'So Far' 사회적 농업 프로젝트가 독일에서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1] 이 유럽 전역의 프로젝트는 사회적 농가가 더욱 투명하게 운영되고 농장 간의 정보와 도움을 주고받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독일에는 사회적, 치료적,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농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지 않거나 정부승인을 받지 못한 농가조직이 있다. 'So Far'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러한 농가들을 찾아, 제도적인 지원과 현황 개선을 위한 사례연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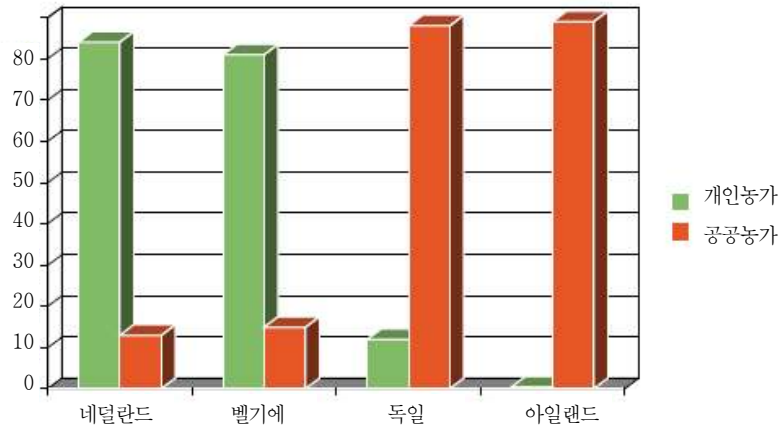
사회적 농업 부문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독일에는 미국에서와 같이 인간과 식물 간의 관계에 주목하는 원예치료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Farming for Health)'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과를 찾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주로 생명공학이나 환경과학을 위주로 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대신, 여러 가지 농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또는 대학의 응용과학 학과에서 추진하는 농업 및 원예활동을 통하여, 자연-정원-식물-인간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 독일 사회적 농업의 주요 서비스 공급 주체는 공공부문인 경우가 많다. 개별적인 농가보다는 제도권의 농가가 사회적 농업 주체의 주류를 이룬다<그림 1 참조>. 사회복지나 교육과 관련된 공공 보호재활 시설 또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어린이를 위한 건강 개선 농업활동, 농장 및 환경교육을 제공한다. 개별 농가를 중심으로 사회적 농업이 발전하여온 다른 유럽국가와 독일의 경우가 구별되는 점 중 하나이다(임송수·김승애 2017).

1) So Far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정한 연구 우선순위 분야 중 하나로 추진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정책 형성을 지원하며 유럽의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함.

2) (http://www.maie-project.eu/index.php?id=44) 2016.12.27.

그림 2. 주요 사회적 농업 시행국가의 개별 및 공공 농가 수(개) 분포




자료: So Far Project (2009).

독일에는 사회적 농업과 결부된 특별한 규제는 없지만 독일 의회가 사회복지 부문의 활동사항을 꼼꼼하게 살핀다. 각 연방주정부에 따라 행정체계, 예산, 제도, 기관이 상이하여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농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기도 한다. 사회적 농업을 실시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특별한 규제는 없지만 독일의 소규모 농가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점은, 소규모의 사회적 농가라 할지라도 정부가 정한 농가 위생관리 기준, 농식품 안전 기준 등을 엄격히 따라야한다는 것이다. 농장이나 작업장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시하는 것이 사회복지(재활, 치료, 교육 등)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일반 소비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생산 활동에 적용되는 요건을 모두 따르기는 힘들다. 국가가 모든 농업생산 활동에 공통으로 요구하는 전문성과 윤리가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프로젝트와 농업이 쉽게 결합되는 것을 막는 일종의 제도적 장벽이 되기도 한다(So Far Project 2009).

# 3. 독일 사회적 농업의 대표 형태

## 3.1. 원예치료요법

### 3.1.1. 현황

독일에서의 원예치료요법은 약 400개의 병원과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를 위한 재활시설에서 활용하는 치료법이자 대표적인 사회적 농업 형태의 하나이다. 독일의 주

요 사회보호시설인 보호 작업장(sheltered workshops)에는 180여개의 '인지적 삶과 일의 공동체'와' 200~500여개의 '녹색 분과'가 있다. 보호 작업장에서 신체장애나 지능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정원과 경관유지를 위한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원예치료 서비스가 병원에서 이루어질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재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면 사회보험이 적용되어 일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의 원예치료 서비스는 다양한 품질관리시스템(QMS)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원예치료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치료법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치료 과정 중의 한 단계로서 시행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품질과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원예치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별도 지원책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독일원예치료연합('Association for Horticulture and Therapy in Germany; 독일약어 GGuT)은 비영리기관이자 독일의 유일한 원예치료 관련 조직이다.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이 운영되며, 회원은 독일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여러 유럽국가 시민들로 구성된다.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원예치료연합 운영자금의 큰 몫을 차지한다.

한편, 원예치료사라는 직업은 독일에서 정식 직업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원사나 농민에서부터 간호사, 직업치료사, 심리학자, 교육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과 직업 이력을 가지고 있다. 대학에서도 원예치료가 특정 학과전공으로 설치된 곳은 없으며 원예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학교도 거의 없다. 그러나 하노버, 본, 드레스덴 대학교에서 일시적으로 원예치료 강의를 개설하기도 하였고 이 분야를 주제로 한 논문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응용과학을 다루는 여러 대학에서도 원예치료 관련 교육과정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3)]

### 3.1.2. 효과

정원을 가꾸는 활동은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신체의 여러 부위를 사용하고 유연성을 기르게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는다. 새로운 신체적 에너지를 얻고 세심함과 감성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원예요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변화하는 다양한 노동조건과 날씨에 더욱 의연하게 대처하고 쉽게 적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들인 시간과 노력으로 조그마한 식물들이 성장해가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원예요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아의식, 분별력, 세심함, 자신감이 향상된 것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3) (http://www.ggut.org/english/) 2016.12.22.

그림 3. 원예치료

자료: The Oregonian (http://blog.oregonlive.com, 2017. 1. 6.)

원예치료요법 효과의 일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울증에 걸린 한 남성이 처음 원예치료요법에 참가하였을 때 자신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노동 강도가 아주 약한 작업만을 맡겨달라고 요청하였다. 치료요법 진행자는 묘목을 심는 일과 같이 아주 간단한 작업만을 주다가 점차 노동 강도가 높은 다른 작업도 맡기기 시작하였다. 작업을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참여자가 강도 높은 작업을 거부하였으나 작업을 지속하면서 다른 일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원예치료활동이 끝나갈 무렵에 참여자는 자신의 거의 모든 신체부위를 쓸 수 있었고 삽으로 땅을 파는 일까지 완수하였던 것이다. 작업 도중에 자신이 가진 힘과 통증을 호소했던 부위의 유연성을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되면서, 우울한 감정을 떨치고 본인 스스로와 자신이 하는 활동에 대하여 더욱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Neuberger 2004).

결국 원예활동이 인간에게 주는 근본적인 혜택은 식물이 생명체이며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 동안이든 식물이 기르는 사람의 동반자가 되어준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인간은 식물을 돌보면서 책임감과 관계의식을 갖게 되며 자신을 둘러싼 자연환경의 의미에 관하여 더욱 자각하게 된다. 원예활동의 이러한 측면이 약물중독에 빠진 사람, 노숙인, 또는 위기를 겪고 있거나 슬픔에 빠진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점이다. 정원은 인간의 힘과 의욕을 발휘할 수 있는 동시에 이러한 힘을 유의미한 작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 작업자는 정원 가꾸기에 참여하면서 신체적인 힘과 인내심을 동시에 길러 작업이 끝나면 대체로 만족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림 4. 원예치료 활동

자료: Therapeutic Landscapes Network (http://www.healinglandscapes.org, 2017. 1. 6.)

## 3.2. 동물을 매개로 한 학습

독일의 '동물을 통한 사회학습 연구소[4]'에서는 어린이가 대략 60마리의 동물들 가운데서 교류하고 싶은 동물을 고르도록 한다. 연구소에는 치료사들이 근무하며 아이들 곁에서 치료를 돕는다.

농장에서 길러지는 가축이나 동물과 교류하면서 아이들은 점차 생명체의 요구와 잠재력을 이해하게 되며 의사소통하고 행동하는 각자만의 방식을 터득하게 된다. 도시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이 자연이나 농장에서 크는 동물과 직접 마주할 기회는 흔치 않다. 동물과 교류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단지 동물을 가까이서 접하는 것에

4) 1994년부터 운영된 동물을 통한 사회학습 연구소(Institut für soziales Lernen mit Tieren)는 동물을 매개로 한 다양한 교육활동과 치유 활동을 제공하는 곳임. 주로 특수학교, 특수학급, 또는 학교에서 사회적으로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치유활동을 개발하고 실시함. 어린이의 교육과 치유 외에도 특별한 도움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자폐증이나 정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치유활동과 물리치료 등을 통하여 도움을 제공함. 연구소에는 전문 치료사, 조련사, 기획담당자가 일하고 있으며 이 조직이 제공하는 치유활동에 참여하는 개, 당나귀, 소, 말, 양, 염소, 백조, 거위, 닭, 토기, 기니피그는 독일의 '동물복지를 위한 수의사연합'의 수의학적, 동물행동학적 기준에 따라 길러지고 있음. (http://lernen-mit-tieren.de) 2017. 1. 6.

그치지 않고, 동물의 행동특성과 인간과의 교감과정 등을 지켜보게 된다. 동물들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거나 자신과 남의 경계를 정할 때 이중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그들의 신호는 직선적이고 단면적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동물과 주고받는 언어 외적 신호에 확신을 갖고 신뢰한다. 또한, 동물은 문화적 관습에 의하여 인간의 행동을 판단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동물들과 진실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교감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그림 5. 동물을 통한 교육 및 치유활동

자료: 동물을 통한 사회학습 연구소(http://lernen-mit-tieren.de, 2017. 1. 6.)

집 안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에 비하여 농장에서 사는 동물들은 물리적으로 인간과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농장에 사는 동물들은 인간과 관계를 맺기 힘들거나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이 널리 퍼져있다. 그러나 동물을 매개로 한 교육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거위, 닭, 양, 송아지, 돼지 등 여러 농장동물은 강한 긍정적인 사회적, 심리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어린이들은 농장동물과 어울려 놀고 교류하면서 정서적, 심리적 발달과 효용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동물을 대하는 태도도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동물은 사람의 자존감, 독립심, 신뢰, 관용 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어린이들은 동물들과 교감하는 가운데, 동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일반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공감능력, 책임감, 배려, 존경과 같은 가치를 배운다.

## 3.3. 보호 작업장('Sheltered Workshop')에서의 농업활동

### 3.3.1. 분포 및 국가지원 현황

1980년대 중후반 독일의 보호 작업장은 농업과 원예 활동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하였다. 보호 작업장에서 농업활동을 실시하면 기계화된 현장에는 존재하기 힘든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수 있었다. 제과업이나 유업 생산 사슬을 통하여 보호 작업장의 구성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가공, 변형, 정제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일자리를 만들게 되었다. 세계화가 점차 진행되면서 보호 작업장에서도 때마침 산업 노동을 대체할 만한 것을 찾고 있었고, 농업의 구조적인 변화로 점점 더 많은 농장의 건물과 밭들이 버려지면서 유기된 농장이나 원예시설을 보호 작업장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독일에서 현재까지도 널리 확산되어 있는 보호 작업장은 장애로 인하여 일반적인 노동시장에는 편입되기 힘든 사람들이 일상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시스템이다. 모든 보호 작업장에서는 노동에 합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적절한 직업 교육과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보호 작업장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고 많은 훈련을 통하여 작업능률을 높이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와 작업공간을 제공하는 데 힘써야 한다. 또한, 작업결과물의 질을 보장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직원들이 있어야 한다.

독일에는 대략 630개의 보호 작업장이 있으며 이 작업장은 21만여 명의 신체부자유자와 지적장애자를 고용한다. 보호 작업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과 환경이 조성된 독일에서는 농업과 원예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는 보호 작업장도 150여 곳에 달한다. 유기농업을 채택하는 보호 작업장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호 작업장에서 유기농법이 활발히 채택되는 이유는 유기농업이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작업환경에 주는 이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유기농업을 채택하면 비료 등 각종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작업장의 안전이 보장된다.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 수가 줄어들면 생산 활동 참여하자들은 작물의 재배과정을 더욱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해하게 된다. 유기농법 시행 농가는 농산물을 주로 농장에서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유기농업을 실시하는 보호 작업장은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지 않는다는 이점도 있다. 한편, 독일 사회에는 유기농법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소비자 인식이 형성되어 있어서, 유기농업을 실시하면 투자 인센티브와 지방정부 보조금과 같은 국가지원을 받기에도 유리하다. 유기

농법의 이러한 다양한 이점 때문에 독일의 농업 및 원예부문 보호 작업장에서 유기농법을 택하는 것은 점점 규범화되어가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의 농업 보호 작업장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유기농업 형태의 농장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녹색환경부문은 신체 및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이 크다. 작업의 범위가 다양하며 자연에서 일한다는 점과 씨뿌리기, 가꾸기, 수확하기와 같은 일련의 순환적 주기(cycle)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점차 많은 보호 작업장들이 농업, 원예, 환경부문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작업장에서 생산된 작물은 일한 사람들에게만 만족감과 보람을 안겨주고 사회적 농업을 실현하는 보호 작업장 전체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일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농업 모델의 보호 작업장은 해결해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 농업 활동은 투자비용이 큰 편이며 작물을 기르고 돌볼 추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 더구나 농업활동은 최적의 관리조건 하에서도 종종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내기도 한다. 이러한 연유로 농업과 원예를 중점분야로 삼는 보호 작업장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 3.3.2. 주요 업무 및 조직구성

보호 작업장의 주된 업무는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직업훈련과 정신적, 신체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성격 발달을 도모하는 일련의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작업장은 결국 신체적, 정신적, 정신의학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하는 장소를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장애의 원인, 특성, 강도에 상관없이 장애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한다. 보호 작업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작업 능률을 보여주면 된다.

보호 작업장은 주로 공적인 자금으로 운영되며 농업과 원예활동의 생산물로 벌어들이는 수입도 작업장 운영에 보태어진다. 대부분의 보호 작업장은 '독일연방 보호작업장 노동위원회(BAGWfbM)[5]'라는 상위기관에서 조직한다. 농민들과 보호 작업장의 직원들은 매년 정기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고 웹사이트를 통하여서도 소통한다.

5) 독일연방 보호작업장 노동위원회는 독일 전역의 보호 작업장을 대표하는 정치적 조직체임. 독일 전체 보호 작업장의 94%가 이 상위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공공부문 복지 담당기관과 종교단체도 이 조직과 함께 일하기도 함. 사회취약계층의 고용, 직업훈련, 보호 작업장의 재정 및 법적 문제 등을 다루며, 보호 작업장 관련 입법 추진 활동도 활발히 전개함 (http://www.bagwfbm.eu) 2017. 1. 6.

## 4. 공동체별 사회적 농업 사례

### 4.1. 마이어호프 농장

이븐이제 재단(Eben-Ezer Foundation)은 신체 및 정신 질환을 지닌 외래환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재단은 1871년에 세워졌고 독일 북서부의 '리페(Lippe)' 지역의 교회의 사회복지업무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 재단은 장애 수준이나 연령과 무관하게, 900여명의 사람들에게 사회적 농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학과 상업 두 부문의 상임이사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재단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이 재단은 20세기 초 농업활동을 전개하는 조직으로 출발하였다. 1차 세계대전 전후 식량공급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차 개인 농장에서 작물을 재배하고는 하였다. 1919년에는 식량공급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농장의 평균 토지 면적이 약 30ha를 넘어섰다. 이븐이제 재단 또한 300여 명의 지체부자유자에게 식량을 제공할 목적으로 '마이어호프 농장(Meierhof farm)'을 교외에 조성하게 된다. 농장 주변으로 주거시설을 세웠고 주거시설은 다른 농장이나 주변 마을과의 접근성도 좋았다. 농장 가까이에 산업시설과 무역기업을 설립하면서 1950년대부터 재단의 농업활동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오늘날의 마이어호프 농장은 대략 30명의 지체부자유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중 절반 정도는 농장의 부속시설에 거주한다. 1999년에는 유기농업 인증을 받았고 독일 최대의 유기농산물 인증기관인 '바이오란트(Bioland)'와 결연한다. 마이어호프 농장은 다양한 생산 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표적으로는 100ha 이상의 땅에 곡물과 뿌리작물을 농장에서 재배하고 분류한 감자를 판매하는 것이다. 동물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환경을 조성하고 약 40ha의 초지에서 축산업을 시행한다. 60여 마리의 소로 우유도 생산하며 자동 집유시스템 등 우유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 외에도 돼지 사육, 돼지고기 판매, 닭 개방 사육, 달걀판매, 말, 양, 염소 사육, 임지 및 제재소 관리 등 다양한 농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삶의 패턴과 리듬의 일부로서 우리 일상에 일정한 구조감과 안정감을 형성한다. 이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특정한 작업을 하고 일터를 갖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 사회적 농업을 추구하는 마이어호프 농장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비록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적인 공간과 작업 공간 사이를 매일 오가며 일상에 유익한 리듬과 다채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븐이제 재단이 만든 작업

그림 6. 마이어호프 농장 축산업 활동

자료: 이븐이제 재단(http://www.eben-ezer.de, 2017. 01. 10.)

장은 사람이 경험하는 직업의 가치와 노동의 즐거움을 장애인들도 누릴 수 있게 하고 공동체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돕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또한 작업 공동체가 형성되고 나면 개인은 자신의 역량과 지식을 연마하기를 원하고 동료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된다. 일하는 과정에서의 숙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직업을 가진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자아존중을 하게 되며, 이러한 점에서 이븐이제 재단의 작업장은 환자들의 정신 건강 증진에도 얼마간 기여하게 된다.

특히 마이어호프 농장의 경우 구성원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살고 일하며 많은 시간과 경험을 공유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한다. 갈등을 통해서든 협동을 통해서든, 농장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고 다시 평가하는 과정을 갖게 된다. 오늘날 마이어호프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 매우 다른 성장배경을 가지고 있다. 농업에 수십 년 종사한 사람도 있으며 청년들은 동물과 함께 일하거나 자연에서 일한다는 점에 이끌려 농장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다른 배경을 가지고 각자 다른 이유로 농장을 찾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지능력에 따라 다양한 생산과정에 책임의식을 갖고 강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낀다는 점을 공유한다.

이븐이제 재단은 보호 작업장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회복지 담당기관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먼저, 농장 관리직원, 보호 작업장의 교육담당직원의 급여가 지원된다. 정부의 의무지원금은 보호 작업장에서 한 명의 교육 담당 직원이 12명의

장애인을 돌보는 것이 가능한 수준의 액수이다. 그러나 마이어호프 농장의 경우 농업 활동의 포트폴리오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도움을 줄 기술직원을 포함하여 더 많은 지도인력이 필요하다. 필요한 추가인력의 급여는 농장 자체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

한편, 농장 내 활동 결과로 얻어지는 수익은 생산에 참여한 장애인들을 위한 급여, 관리 직원의 급여, 투자 및 유지비용을 위하여 쓰인다. 마이어호프의 시설 및 기자재 비용과 공간 유지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재활관련 기관에서 생산부문 투자액의 30%를 지원해준다.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농장은 장기적으로 농산물 시장과 노동시장의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향상된 작업공간을 마련하였다.

## 4.2. 기독교 농업활동 작업공동체 '마리아 빈'과 '성 안토니우스하임'

19세기 말 작업공동체가 생겨나면서 증가하던 노숙자 인구와 가난한 이민자를 위한 대안시설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당시 독일에서는 산업화의 바람으로 인하여 직업을 갖지 못하는 이민자와 노숙인의 수가 우려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어떤 이민자들은 하루나 이틀을 이 작업공동체 시설에 머물기도 하고 또 다른 이민자들은 몇 달에서 몇 년간을 머물기도 하였다. 이 공동체에 머무르던 사람은 노령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누구나 공통적으로 공사작업이나 공동체 시설 유지관리 작업에 참여하여야만 했다. 작업공동체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시설을 처음 설립한 프리드리히 폰 보델슈빙(Friedrich von Bodelschwingh)은 '자선 대신 일'이라는 구호로 작업공동체의 개념을 요약하기도 하였다.

1888년 독일의 기독교작업공동체연합(Association for Catholic Work Colonies)이 뮌스터(Münster) 교구의 참여로 베스트팔렌(Westfalen) 지역에서 설립되면서, 뮌스터 남부에 하우스 마리아 빈(Haus Maria Veen)이라는 이름으로 첫 작업공동체가 만들어졌다. 그로부터 20년 후에 네덜란드 국경과 맞닿은 뮌스터 서부 지역에 성 안토니우스하임(St. Antoniusheim)이라는 두 번째 작업공동체가 세워졌다. 오늘날까지도 두 작업공동체는 노숙인들과 노인들을 돕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지만, 두 공동체는 19세기에 세워졌다는 것 말고는 현재는 거의 공통점이 없다.

그림 7. 1916년 성 안토니우스하임 전경

자료: 성 안토니우스하임(http://www.antoniusheim.de, 2017. 1. 10.)

## 4.3.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서의 농업

작업공동체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빈곤계층의 사람들이 식량과 묵을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다고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농업 생산이 넓은 의미에서 식량 자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사회보호 및 재활 시설로서의 작업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농업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작업공동체는 주로 산업 중심지나 도심이 확장된 시 외곽지역에 세워지고는 하였다. 도시 한복판에 도사린 도덕적, 정치적 타락에 빠지는 위험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당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습지대나 황야 같은 곳이 많았지만 이러한 토지는 농업활동을 하는데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정착하여 살기도 어려운 조건이었다.

토양조건이 워낙 좋지 않아, '하우스 마리아 빈'이나 '성 안토니우스하임' 두 공동체 모두 공동체 자산만으로는 유지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도움이 필요하여 작업공동체에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였으나, 농업활동의 결과인 생산량도 많지 않았다. 설립 초기부터 두 작업공동체는 기부와 공공 보조금에 의존하여 운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업공동체에서와 마찬가지로 20세기 초중반에 더 크고 다양한 농업이 발전되어갔다. 새로운 형태의 농업은 작업공동체에서 필요한 식량과 서비스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하고 보조금을 포함한 여러 공공 자금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었다. 농업활동은 공동체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혜택도 안겨주었다. 이민자 노숙인 중 대다수가 이미 농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들은 그 경험으로 농업활동을 이끌어갔다. 이 점은 이민자들이 지닌 결점보다 그들의 능력을 부각시켜주었다. 초기 사회적 농업 형태의 작업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기계나 설비가 부족하더라도 농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증명되었고, 이로 인하여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다. 이로써 농업이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빈곤한 계층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

사회 중심부에서 다소 격리되어있는 공간에서의 고된 노동이 알코올중독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수단이 된다는 당시의 믿음도 사회적 농업의 초기 형태를 채택한 작업공동체가 번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작업공동체의 한 해 계획과 하루 계획은 농업활동의 특성상 자연의 현상과 주기를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농업의 이 특성은 공동체의 생활과 운영을 안정화하는 역할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농업 부문도 분업화나 기계화의 흐름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농업활동 종사자에게 어느 정도의 숙련된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노숙인들 가운데 현대적인 농업기술이나 영농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즉, 작업공동체에 소속되어 경험과 역량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된 것이다. 사회취약계층에게 재활과 치유를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던 하우스 마리아 빈과 성 안토니우스하임 두 공동체의 특수기능은 사회복지국가 개념이 발전하면서 점차 희미해져갔다. 작업공동체의 운영과 기능에서 농업생산 활동이 차지하던 비중과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작물 생산 등 정통 농업활동을 작업공동체의 주요 분야로 다루던 것에서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서 독일의 작업공동체들은 원예활동을 통한 치유와 돌봄(“care”)의 가능성에 더욱 주목하게 된다. 최근에는 세탁이나 청소와 같은 서비스업을 주요 활동으로 채택하는 돌봄 시설도 많다. 약간의 지체는 있지만 주요 작업공동체들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산업의 흐름은 전체적인 노동시장 상황과 변천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20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성 안토니우스하임이나 하우스 마리아 빈 공동체에 소속되어 거주하는 사람들 중 원예에 관여하지 않고 농업생산 활동에만 오로지 종사하는 사람은 10%도 채 되지 않았

다는 점에서 그러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 구조나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앞서 거론된 두 작업공동체 모두 농업 활동을 전적으로 폐기하지는 않았다. 이 결정은 전통적으로 해오던 활동을 고수하는 차원에서라기보다는 농업 자체가 지닌 긍정적인 표상과 재활 지원 가능성에 더욱 주목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에서 농업생산에 참여하면서 더욱 자연스럽게 사회 구조를 수용하고 시스템에 통합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활동의 결과가 성공적이고 이로써 대중들의 호응이 있을 때에 이 효과는 극대화되었다. 1980년대 말까지 하우스 마리아 빈 공동체의 농업생산 활동조직은 낙농업 활동으로 여러 차례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농업이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마다의 상이한 능력, 의지, 요구사항을 충족할 여지가 많아, 여러 사회적 시설에서 복지프로그램으로서 농업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 5. 시사점 및 결언

독일에서의 사회적 농업은 이처럼 근대국가 형성기에서부터 비교적 꾸준하게 발전되어 왔지만 독일의 일반적인 환경교육 활동에 비추어볼 때 사회적 농업은 아직 개선과 발전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독일의 사회적 농업이 지난 백여 년간 정신질환자의 치유와 청소년 학습에 주된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생산 활동이나 동물교류 활동 뿐만 아니라 생산결과물의 부가 가치 형성 방안을 고심하여 그 영역을 다양화하고 확장할 때이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과 기반이 발달한 사회에서도 법이나 제도가 미비하고 기술적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하면 외연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농업의 일부 형태를 추구하는 공동체나 작업장의 운영과 관리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요청할 일반적인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부 부처, 기관, 단체와의 소통의 벽이 높다는 점을 호소한다. 사회적 농업의 실현을 뒷받침할 법체계나 정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여러 관련 기관의 운영체계와 조직구조가 상이하여 지원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 한편, 교내농장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재정상의 이유로 농장체험학습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농업을 통한 전인교육은 정규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주는 교육적 효과가 직접적

이거나 가시적이지 않아, 정부나 일반 시민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다.

의사와 치료사들에게는 한편, 각기 다른 질병이나 문제를 지닌 각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적절한 농장을 찾아 추천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는 사회적 농업을 실현하는 농장이나 작업장의 수와 형태가 제한적이라는 점에 기인하기도 한다. 비교적 사회적 농업이 폭넓게 인식되고 점차 안착되어가는 단계에 접어든 독일에서도 공급 다양성의 한계로 인하여 사회적 농업의 이점과 효과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농업 기반의 재활 및 치료시설에서 환자의 부모나 친지들이 요청하는 바를 모두 충족해주지 못하는 것도 사회적 농업이 안고 있는 주된 고충이다. 기술적인 자문이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전문 인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이다(van Elsen and Kalisch 2008).

재정 지원 부족으로 인한 운영난,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내실 저하는 독일의 농장과 작업장에서 흔히 거론되는 문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전역에서 다양한 사회적 농업 프로젝트가 시행되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실현 사례는 갈수록 증가한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과정은 독일의 농촌지역, 국토경관, 지역네트워크의 발전도 동시에 견인한다. 전통 농법에 비하여 사회적 농업 기반의 농장이나 작업장이 채택하는 유기농법은 그 적용방식 자체가 매우 다양하다. 기계화보다는 사람의 노동이 더 많이 필요하며 살충제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줄어든다. 하나의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유럽 전역에서 시도된 대표적인 사회적 농업 프로젝트 'So Far'의 결실 또한 독일 사회에서 사회적 농업이 지속되고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6]

사회적 농업을 이제 갓 도입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그 개념조차 생소할 수밖에 없고 효과와 이점을 입증할 만한 사례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적 농업을 실현하고 서비스 이용 대상 그룹에게 치유효과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현 단계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농업 형태의 시도와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 독일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권역 차원(유럽)의 광범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결부된 다양한 활동과 결과가 더 작은 단위의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의 독일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은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시설을 설립하고 공동체를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6) (http://www.maie-project.eu/index.php?id=44) 2016.12.27.

는 점이다. 사회취약계층의 자립과 재활을 돕는 보호 작업장을 정부 차원에서 계획, 승인하고 설립하였으며 이러한 작업 공동체와 농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업이 발전하여왔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시설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치유를 주요 목적으로 삼는 사회적 농업이 꽃피기는 어렵다. 특히, 제도적인 기반시설과 정책적 지원 없이 민간부문 참여자가 독자적으로 특수한 형태의 농업을 발전시키기는 쉽지 않다.

독일은 공적인 사회보호시설과 학교를 통하여 가장 대표적인 두 갈래의 사회적 농업을 장려하고 발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신체정신질환자를 위한 원예활동으로, 그것의 치유효과는 식물을 기르고 보호하는 정신적, 신체적 "관여(engagement)"로부터 발현된다. 씨를 뿌리고 꽃이나 기타 식물이 커가는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자기 작업의 효용을 직접 목격하게 되며 그 사이에 책임감과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자연이 배경인 현장에서 주기적으로 신체활동을 하면서 원예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기력이나 우울함을 극복하게 되며 점차 자기 신체와 정신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독일 사회적 농업의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는 학교 내 농장이나 농장동물과의 교류학습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전인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어린이들은 동물의 특성을 알아가고 그들과 교감하는 법을 익힐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맺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의사소통방법, 책임의식, 배려 같은 귀중한 가치를 체득한다.

사회적 농업 도입 초기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농업 및 비농업 활동을 민간 농장에서 시도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장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독일에서와 같이 보호 및 재활시설을 기점으로 사회적 농업을 적극 도입하거나 점차 우리나라에서 지평을 넓혀가는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사회적 농업을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적 농업 수요 집단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치유와 교육 등의 효과를 자아낼 활동을 개발하는 것이다. 농업을 통한 치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과 농업활동 지원에 참여할 전문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과 우리 농업계를 포함한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여건을 고려하고 다부문의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또한 독일 사례에서 확인하였다.

규모가 크고 제도적 지원책이 잘 발달한 기존 선진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참고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농업 활동에 실제로 참여하게 될 주요 대상이 누구인

지와 그들의 참여목적을 실현할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농업을 꽃피우기 위하여 본떠야 하는 정해진 특정 농업활동의 형태나 선진사례는 없다. 농업활동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여러 계층과 집단을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어린이나 청소년이 자연과 생명에 대한 경외와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모든 다채로운 사회운동이 우리나라만의 사회적 농업으로 발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임송수·김승애. 2017. “유럽의 사회적 농업 개관과 이탈리아의 사례”. 세계농업 11월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Di Iacovo. 2008. Social Farming: Dealing with Communities Rebuilding Local Economy. Presented at Rural Futures: Dreams, Dilemmas, Dangers Conference, April 2~4, 2008, University of Polymouth, UK.

Di Iacovo, F. and O'Connor, D. (eds). 2009.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Arsia(Agenzia Regionale per lo Sviluppo e l'Innovazione nel settore Agricolo-forestale).

Neuberger, K. 2004. Some Therapeutic aspects of gardening in psychiatry. Proceedings of 8th International People-Plant Symposium IPPS.

Neuberger, K., Stephan, I., Hermanowski, R. Flake, A., Post, F.-J. and van Elsen, T. V. 2006. “Farming for Health: Aspects from Germany.” Farming for Health, 193-211.

So Far Project. 2009.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van Elsen, T. and Kalisch, M. 2008. Kulturlandschaftsgestaltung in landwirtschaftlichen Betrieben mit Integration von behinderten Menschen – Fallbeispiele in Deutschland.

## 참고사이트

독일원예치료연합 (http://www.ggut.org/english/)
독일연방 보호작업장 노동위원회 (http://www.bagwfbm.eu)
동물을 통한 사회학습 연구소 (http://lernen-mit-tieren.de)
성 안토니우스하임(http://www.antoniusheim.de)
유럽 다원적 기능 농업 국제가상기능센터 (http://www.maie-project.eu/index.php?id=44)
이븐이제 재단(http://www.eben-ezer.de)
Therapeutic Landscapes Network (http://www.healinglandscapes.org)
The Oregonian (http://blog.oregonlive.com)